

전일동향

전일대비 1.20원 하락한 1,397.00원에 마감

27일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전일대비 1.20원 하락한 1,397.00원에 마감했다. 이날 환율은 NDF 달러-원 1개월물 하락에도 전 거래일 증가 대비 0.80원 상승한 1,399.00원에 개장했다. 환율은 개장 직후 완화된 글로벌 달러 강세에 1,393.10원까지 하락했으나, 결제 수요에 보합권으로 반등했다. 이후 특별한 재료 부재 등으로 환율은 보합권을 횡보하며, 1,397.00원에 종가(15:30 기준)를 기록했다. 주간장중 변동 폭은 5.90원이었다. 한편,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-원 재정환율은 918.16원이다.

전일환율변동	구분	시가	고가	저가	종가	평균환율 (매매기준율)
	달러	1399.00	1399.00	1391.50	1397.00	1396.80
	엔화	913.46	927.18	909.51	924.55	-
	유로화	1465.44	1478.30	1459.43	1475.86	-
* 시가/고가/저가/종가 : 달러는 익일 06:00 기준, 엔화 및 유로화는 15:30 기준						

F/X(달러-원) 스왑포인트		1M	3M	6M	12M
	보장환율(수출)	-0.08	-3.61	-10.32	-24.42
	결제환율(수입)	0	-2.75	-8.62	-21.01
*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,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					
*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,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(https://www.ksure.or.kr/rh-fx/index.do) 확인					

금일 전망

강달러 완화에...1,390원대 초반 중심 등락 전망

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(-1.05원)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(1,397.00) 대비 6.45원 하락한 1,389.5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. 금일 환율은 달러 강세 진정 및 수출업체 네고 유입에 하락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. 미국 3분기 GDP 성장을 잠정치는 연율 2.8%로 속보치와 동일하다. 미 10월 근원 PCE 가격지수도 전월비 0.3%, 전년비 2.8% 상승해 예상치에 부합했다. 한편 슈나벨 ECB 집행이사가 서둘러 금리를 인하할 유인이 없다고 발언하자, 12월 빅컷 기대가 후퇴함에 따라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였다. 엔화는 BOJ가 일본 물가 및 임금 상승 압력에 따라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큰 폭의 강세를 시험했다. 달러화는 예상에 부합한 경제지표 발표 및 엔화와 유로화의 강세에 약세를 보였다. 주요 통화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에 금일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. 이번 주 수출업체의 네고 물량이 환율에 유의미한 방향성을 만들어 냈으며, 월말을 맞아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사는 리밸런싱에 따른 수급 영향은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. 다만, 금일 금통위의 금리결정 및 국내증시 외인 순매도 등은 환율의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.

금일 달러/원 예상 범위	1385.50 ~ 1394.50 원
체크포인트	■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: -3343.96 억원
	■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(NDF) :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6.45원 ↓
	■ 美 다우지수 : 44722.06, -138.25p(-0.31%)
	■ 전일 현물환 거래량(종합) : 80.06 억달러
	■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: +1031 억원

※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